

서지데이터베이스의 著作權 문제가 문헌정보의 流通에 미치는 影響： OCLC와 LC의 事例를 중심으로

이 제 환*

< 목 차 >

- | | |
|---|---|
| <p>I. 서론 : 연구의 背景 및 目的</p> <p>II. 서지데이터베이스의 著作權 논쟁 :
歷史的 側面</p> <p>1. LC의 NAC Forum과 OCLC의
'제3자 원칙'</p> <p>2. OCLC의 저작권 등록과 美圖書館
界의 對應</p> <p>3. LC의 저작권 등록 試圖와 그 波
長</p> <p>III. 서지데이터베이스의 著作權 논쟁 :
文化的, 經濟的, 哲學的 要因</p> | <p>IV. 서지데이터베이스의 著作權 문제
가 문헌정보의 流通에 미치는 影
響</p> <p>1. 美國內的 문헌정보유통에 대한
影響</p> <p>2. 國際的인 문헌정보유통에 대한
影響</p> <p>V. 결론 및 参考文献</p> |
|---|---|

I. 서론 : 연구의 背景 및 目的

1982년, OCLC가 OCLC database에 대한 著作權을 주장하면서 시작된 '공용의 목적으로 개발된 서지데이터베이스의 소유권에 대한 문제'는, 1990년대에 들어 美國의 의회도서관 (Library of Congress)에 의해 방대한 LC MARC file에 대한 저작권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이어졌고, 이 저작권 문제는 '公共材로서 생산된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라는 측면에서 미국의 圖書館界를 비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전임강사

못한 국제圖書館界를 뜨거운 논쟁속으로 몰아넣은 바 있다. 미국의 국가재정의 어려움이 공공서비스 부문에 대한 투자감소로 결과하고, 특히, 정보자료의 관리 및 처리의 분야에 정보기술이 도입/응용되면서, 공용의 목적下에 공유를 전제로 개발된 서지데이터베이스의 소유권에 대한 논쟁은 기존의 도서관 사이의 자료공유 및 서지데이터 처리를 위한 협력체제가 구조적이고 법률적인 면에서 조정과 개선이 필요함을 일깨워 주었다. 이 논쟁은 특히, GATT체제를 거쳐 WTO체제로 들어서는 현 시점에서, 문헌정보의 국제적 유통과 관련하여 도서관 및 정보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많은 전문가들의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한편, 국내로 시선을 돌리면, 197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도서관계의 자동화 작업은 1990년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각종 연구소의 자료실과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어 가고 있다. 이미 몇몇 도서관이 Total system을 구축하여 자료의 관리 및 이용을 위한 자동화를 마쳤으며, 많은 수의 도서관들이 개별적인 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 금세기에 내 한국도서관계도 자동화된 도서관끼리의 협력체제의 구축이 보다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올 전망이다. '도서관망(library network)'의 구축은 한정된 정보자료의 공동이용이라는 측면(resource-sharing)과 자료조직업무의 공동작업이 가능해진다는 측면(shared-cataloging)에서, 국내도서관계가 반드시 이루어 내야 할 과제 중의 하나이다. 이를 위해 선결해야 할 많은 구조적/기술적 문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국가 혹은 지역 단위의 '공용서지데이터베이스'의 개발 및 관리의 문제는 국내도서관계에서 시급히 논의되어야 할 주요한 이슈로 여겨진다. 여기서, 본 논문은, 우리 보다 먼저 도서관자동화를 완성하고, 특히 다양한 도서관망의 구축을 통한 문헌정보의 효율적 처리 및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한발 앞서 있는 美國圖書館界에서, '공용의 목적하에 공유를 전제로 개발된' 서지데이터베이스들의 관리 및 소유권 문제를 둘러싸고 어떠한 논쟁이 전개되어 왔는지를 논의해 봄으로써, 각종 도서관망의 구축을 눈앞에 두고 있는 국내도서관계가 그 데이터베이스들의 관리 및 소유권과 관련하여

당면할지도 모르는 문제점들을 미리 분석해 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데이터베이스의 소유권 문제를 저작권이라는 법률적 문제와 연계하여 설명하고, 그 저작권 문제가 국제적인 문헌정보의 유통에 미치게 될지 모르는 영향을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구체적 논의를 위한 다음의 세 질문을 설정한다 :

- 1) OCLC와 LC의 사례에서 나타난 서지데이터베이스의 소유권에 대한 논쟁의 주요인은 무엇인가?
- 2) 서지데이터베이스의 소유권 논쟁이 문헌정보유통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 특히, OCLC와 LC에 의한 서지데이터베이스의 저작권화가 국제적인 문헌정보유통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 3) 마지막으로, 자동화된 도서관끼리의 본격적인 협력망 구축을 목전에 두고 있는 國內圖書館界가 장차 개발되어질 서지데이터베이스들의 관리 및 소유와 관련하여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II. 서지데이터베이스의 著作權 논쟁 : 歷史的 側面

1970년대 이전, 美國圖書館界에서 서지레코드 생산자들은 그들이 생산해낸 서지레코드들이 도서관을 비롯한 여타 정보관리기관들에 의해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되는 문제에 대해 그다지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도서관들은 자유롭게 그들이 생산해낸 서지레코드들을 의회도서관(LC)에 제공하였고, LC는 이를 토대로 국가의 종합문헌목록인 《National Union Catalog (NUC)》를 생산해 냈으며, 차례로, 많은 도서관들은 그들의 장서개발 및 자료조직업무를 위해 LC에 의해 편찬된 NUC를 참고하였다. 1976년에 NUC에 대한 저작권이 미도서관협회(ALA)에 속

한다는 결정이 미저저작권사무소 (the Register of Copyrights)에 의해 내려졌을 때조차도, ALA의 저작권확보 목적은 상업적 출판사들에 의한 무단복제 및 판매를 방지하기 위한다 있었지, 개인이나 여타 도서관들에 의한 利用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司書들 사이에 서지데이터베이스의 소유권 문제가 논쟁거리로 대두하면서, 서지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MARC 레코드들에 대한 著作權시비가 본격화된 것은 1970년대 후반의 일이었다. 당시, 새로운 저작권법이 제정/통과되고 (the 1976 Copyright Act), 숫적으로 급증하고 있던 서지데이터베이스들을 서로 연결시키기 위한 정보기술의 발전이 급속히 이루어지면서, MARC 레코드들의 소유권 문제는 사서들 사이에 본격적인 관심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특히, OCLC와 같은 주요 도서관망들에 의해 거대한 규모의 서지데이터베이스의 개발이 본격화 되면서, 개개의 도서관들이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주요 도서관망의 중앙시설 및 장비를 이용하여 자료조직업무를 수행하게 되고, 그 결과로 생산된 MARC 레코드들이 도서관망의 본부에 위치한 거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형성하기 시작하면서, 개개의 도서관들과 그들이 생산하여 중앙의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한 MARC 레코드들 사이의 관계는 점차 애매해져 갔다.

이처럼, 데이터베이스의 소유권을 둘러싼 논쟁은, MARC 레코드를 생산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입력시킨 주체는 개개의 도서관들이었으나, 그 레코드들의 관리 및 유지를 위한 각종 장비 및 인적 자원을 제공한 주체는 도서관망들이었다는 점에서, 초기부터 이미 씨앗은 잉태되어 있었다. 특히, 도서관망들이 시설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비용을 가입도서관들의 회비에 의존하기 보다는 그들이 관리하고 있는 서지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사용료를 부가함으로써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이 늘어나면서, 주요 資産인 서지데이터베이스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도서관망의 운영주체들 사이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와같은 도서관망의 운영주체들의 노력에 대한 美圖書館界, 특히, 개개 도서관의 경영층을 형성하고 있던 司書들

의 반론은 거세었고, 1980년대로 접어들면서 이 논쟁은 본격화 되어갔다.

1. LC의 NAC Forum과 OCLC의 '제3자 원칙'

MARC 형태의 서지레코드의 사용에 대해 통제를 가하려는 본격적인 시도가 美 도서관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초의 일이었다. 이 시도의 주요한 계기는 LC의 Network Advisory Committee (NAC)가 '서지데이터의 소유권과 분배'라는 주제하에 소집한 forum이 제공하였다. LC의 NAC forum에서 논의된 주요 안건은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이라는 미국의 기본 전통은 유지하되, MARC 형태의 서지레코드들의 보급을 책임지고 있는 주체 (즉, LC)에 대한 보상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여기서, 이 NAC forum의 취지와 과급효과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해, 그 모임의 발제문 중 한 구절을 인용해 본다 :

"...possession of bibliographic records may not constitute ownership in a legal sense. Access to such records, therefore, may require a new concept of access or control other than ownership to replace or supplement the traditional practice of copyright... For bibliographic records, ownership may be better established by the possession of and the ability to provide access to records. Such access could be governed by contractual arrangements..."

(Webster and Maruyama, 1981).

위의 인용문에서 서지데이터베이스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내용은, 서지레코드의 생산자 보다는 보유자 (possessors)가 서지레코드에 대한 권한의 행사에 있어 실질적인 주체가 된다는 주장이다. 궁극적으로, 이 NAC forum의 제안은 서지데이터베이스의 소유권에 대한 향후 십여년에 걸친 논쟁의 시발점이 되었다.

같은 시기에, OCLC 또한 주요 자산인 OCLC database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

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었다. OCLC의 노력은, OCLC의 서비스를 증개하고 있던 AMIGOS나 NELINET와 같은 지역도서관망들과 체결한 협약문 (contracts)의 어구를 손질하려는 것을 통하여 처음으로 나타났다. 협약문에서 OCLC측이 수정하여 첨가하고자 했던 구문은, OCLC database에 포함된 서지레코드들의 사용을 가입 도서관들과 OCLC 자체에 국한시킴으로써, 지역도서관망들이 가입도서관들이 생산해 내는 서지레코드들을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제3자 (third-parties)’¹⁾에게 재판매하는 것을 규제하는데 있었다. 즉, 이익을 추구하는 제3자에 의한 사용을 규제함으로써, OCLC database를 보호하고자 한 것이 당시 OCLC 경영층의 의도였다.

반면, OCLC에 가입하고 있던 도서관들의 견해는 OCLC의 경영층의 그것과는 전혀 달랐다. 대부분의 OCLC 가입도서관들은 그들이 비용까지 지불해가며 생산해 낸 서지레코드들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그 누구에게라도 OCLC가 제한할 권리는 없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많은 OCLC 가입도서관의 경우, 이들 도서관의 소장장서목록의 생산을 위해 이들 지역에 위치한 상업적 데이터베이스서비스회사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OCLC가 제안한 ‘제3자에 의한 OCLC database 이용제한案 (the third-party restriction)’은 심각한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Martin, 1986). 결국, 이 문제에 대한 몇차례의 청문회가 개최되고, OCLC의 경영층 (Board of Trustees)은 지역도서관망들과의 협약문의 내용을 수정하여 제3자에 의한 OCLC database의 이용을 제한하려던 당초의 계획을 일단 취소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주요 資産인 서지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려는 OCLC 경영층의 시도가 여기서 끝난 것은 아니었다. 1980년 말, OCLC는 제3자에 의한 OCLC database의 이용과 관련하여, 당초의 案에서 다소 후퇴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1) 여기서, ‘A Third Party’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an entity that has neither a direct contractual relationship with OCLC nor an indirect contractual relationship with OCLC through a network : therefore, a member library or and OCLC affiliated and/or network is not a third party (Transfer of OCLC-derived , 1985)

전격적으로 공표하기에 이르렀다. 그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

“OCLC의 가입도서관이나 혹은 OCLC와 협약을 맺은 지역도서관망들에 의한 OCLC 서지레코드의 이용, 공유 및 판매에는 아무런 제약이 부카되지 않는다. 단, OCLC와 가입 도서관, 그리고 협약을 맺은 지역도서관망들에 결코 득이 되지 않는, 즉, 재판매 등의 목적하에 민간기업에 OCLC의 서지레코드를 전매하는 행위는 반드시 OCLC의 사전 동의를 구해야한다” (Maruyama, 1985).

앞서 소개된 LC NAC forum에서의 최종 제안과 위의 구문에서 나타난대로 OCLC에 의한 다소 수정된 상태의 ‘제3자 원칙’의 공표를 끝으로, 美國圖書館界를 격앙시켰던 ‘공용으로 개발된 서지데이터베이스의 소유권’에 대한 시비는 일단락된 것처럼 보였다. (실제로, ‘소유권’에 관한 토의는 이후 개최된 NAC forum의 논제에서 제외되기에 이른다). 그러나, 향후 벌어진 OCLC와 지역도서관망들 사이의 구체적 협약과정에서 ‘서지데이터베이스의 소유권’ 문제는 논쟁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이 아니었음이 드러난다. 특히, 1980년대 초반,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는 지역 도서관들의 수가 급증하면서, 서지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통제하려는 도서관망 경영층의 시도가 협약과정상에서 압력이나 법적 대응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나자, 司書들은 비로소 ‘서지데이터베이스의 소유권 문제’가 미래 도서관의 재정 및 경영과 관련하여 핵심문제가 됨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Bulletin of the ASIS, 1981).

2. OCLC의 著作權 등록과 美國圖書館界의 對應

보유/관리하고 있던 서지데이터베이스를 저작권화 하는 것을 통하여 소유권 (ownership)을 확보하려는 OCLC 경영층의 시도는 ‘서지데이터베이스의 소유권 논쟁’의 핵심을 이룬다. OCLC 경영층의 입장에서, 그들의 가장 소중한 자산인 데이터베이스는 강력하면서도 동시에 허약한 무기로 느껴졌다. OCLC의 존재와 성장이 가입도서관들과의 허약한 합의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에 늘 불안해 하던

OCLC 경영층은, OCLC의 자립적인 재정능력을 확고히 하기위한 수단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게 되었고, 이를 위한 최선의 방법을 非가입도서관들에 의한 '무단사용 (unauthorized use)'으로 부터 그들의 데이터베이스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에서 찾았다 (Lighthill, 1982). 이와 같은 취지에서 나온 대안이, OCLC의 운영을 가입도서관들의 회비에 의존하기 보다는 OCLC database를 이용하는 시간과 양에 따라 이용도서관들이 지불하는 비용에 의존하지는 방안이었다 (Brown, 1985). 이를 위한 법적 장치로서 OCLC database의 저작권화는, OCLC의 경영층의 입장에선 필수적인 것이었다.

데이터베이스 저작권 확보를 위한 OCLC의 노력을 자극한 또하나의 요인은 RLIN과 같은 전국규모의 도서관망들 그리고 상업적 vendor들과의 경쟁이었다. 1980년대 초반에 이르러, OCLC는 더이상 홀로 우뚝선 독보적인 서지정보서비스기관이 아니었다. 경쟁은 다양한 곳으로부터 왔으며, 특히, RLG의 RLIN은 위협적인 경쟁상대였다. OCLC의 가장소중한 회원들 (즉, 대규모의 research libraries) 중의 일부가 속속 RLIN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더불어, 거대한 컴퓨터시스템을 갖춘 SOLINET나 NELINET와 같은 지역도서관망 (regional networks) 들로부터의 도전도 점차 거세어지고 있었고, 또한,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여 서지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업적 vendor들의 수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였다. 이와같은 경쟁자들에 대한 OCLC의 반응은 처음에는 개별적인 대응이었으나, 곧 전략은 정비되었고, 이 전략은 1)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저작권 확보와 2) 지역도서관망들과의 기존 협약을 수정하는 방법으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된 '제3에 의한 데이터베이스 이용제한 원칙'을 지역도서관망들과의 협약갱신을 통해 구체화하려는 시도가 먼저 행해졌고 (1980년), 그로부터 2년 후, 1976년의 Copyright Act의 조항에 근거, 보유 online database와 offline archive records (즉, 가입도서관들의 장서 목록)에 대한 著作權 등록을 신청하였다.

OCLC의 저작권 신청은 즉각적으로 美圖書館界의 커다란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1983년 한 해 동안만, OCLC의 행위를 비난하는 성명들이 관련 저널에 넘쳐 흘렀고, OCLC의 저작권주장의 부당성²⁾을 지적하는 편지들이 저작권사무소 (the Register of Copyrights)로 보내졌다 (Martin, 1986). 또한, 성명이나 편지만으로는 저작권사무소를 설득하기에 미흡하다고 판단한 가입도서관들 중, 특히 25개의 대형 연구도서관들은, OCLC에 의한 저작권등록을 유보시키기 위한 조치로 OCLC database에 대한 그들의 저작권을 독립적으로 신청하는 등 법적대응을 강구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서관협의체들의 중재노력도 활발히 전개되었다. 미도서관협회의 협의회 (The Council of the ALA)는 여러 차례의 관련모임을 주선하면서, OCLC로 하여금 가입도서관에 부과하고 있는 OCLC database 이용에 대한 제한조치를 최소화할 것을 촉구하였고, 더불어 '서지데이터베이스의 소유권 문제'를 심층적으로 토론하기 위한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 와중에, 事案의 민감함을 인식한 저작권사무소는 양측의 손을 동시에 들어주는 방식으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 즉, 1984년, online database에 대한 저작권은 OCLC로, offline archive records에 대한 저작권은 저작권 등록신청을 접수시킨 25개의 도서관으로, 각각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선에서 최종 결정은 내려졌다. 그러나, 이 결정에 근거하여 OCLC에 의해 취해진 일련의 후속조치는 OCLC database의 소유권과 관련한 논쟁의 진정한 승리자는 OCLC임을 입증하였다.³⁾ 이후, 이 문제를 막후에서 중재하기 위해 결성되었던 미도서관협회의 특별위원회 (the ALA Task Force)는, 1980년의 LC NAC Forum의 최종제안과 흡사한 절충안을 마련 공표하는 것으로 그 역할을 종식지었다. 즉, "정보의 접근에 대한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나, 공동의 이익을 위한 목적하에 OCLC database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사무소의 판결에 의한 저작권과 OCLC와 가입도서관 사

2) 도서관계의 주장은, "OCLC database에 수록된 서지메코드블 OCLC system을 이용하는 가입도서관들에 의해 생산되어지거나, LC와 같은 공공기관에 의해 생산되어졌지, OCLC자체에 생산되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OCLC의 저작권 주장은 부당하다"는 논지로 요약된다.

이의 협약체결시 정했던 의무사항을 양측 모두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요지의 성명을 채택하였던 것이다 (ALA Task Force on..., 1985).

이처럼, 이때까지의 결과만을 놓고 볼 때, 최초의 승리는 OCLC 경영층에게 돌아간 듯 보였으나, 그것으로 ‘소유권’을 둘러싼 논쟁이 일단락된 것은 아니었다. OCLC의 경영층은 향후 지속적으로 전개되는 ‘소유권’을 둘러싼 논쟁에 휩싸여야만 했다. 먼저, 저작권 등록이라는 조치가 지나치게 급진적이었다는 가입도서관들의 계속되는 항의에, OCLC는 결국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토의하기 위한 위원회⁴⁾를 구성하기에 이르렀고, 그 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OCLC 경영층은 저작권의 즉각적인 실행을 보류하고 당분간 OCLC database의 이용에 대한 규정은 가입자와의 협약을 체결할 때 협약문의 어구를 조정하는 것으로 대체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또한, SOLINET나 AMIGOS 같은 지역도서관망들의 항의와 비난, 그리고 법적 대응은 여전히 지속되었다. 특히, AMIGOS의 경우, OCLC database에 대한 共同著作權을 주장하는 신청서를 저작권사무소에 접수시켰고, 1986년에 이르러 공동저작권을 인정한다는 결정을 받아내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OCLC database의 저작권 등록을 둘러싼 논쟁은 OCLC와 도서관계 그리고, OCLC와 지역도서관망들 사이에 끝없이 지속되었고, 마침내, 美圖書館界의 관련 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이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의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대두하였다. 그 결과로, 1986년에, 공공 혹은 민간부문의 도서관망 관련단체로부터 27명의 대표자들이 모인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또 한차례의 NAC meeting이 개최되었다.

3) The Register of Copyrights의 결정이 내려진 이후, 독립적으로 저작권 신청을 접수시켰던 한 도서관에서 OCLC system을 이용하여 그 도서관이 생산해 내는 모든 서지레코드에 ‘copyright notice’를 첨가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OCLC는 그 도서관이 가입자의 협조조항을 위반하였다는 구실과 함께 그 notice를 모두 삭제하는 조치를 취하였던 바, 이 사건은 데이터베이스의 실제적인 소유권은 이미 OCLC로 넘어갔음을 입증하였다.

4) 그 위원회의 명칭은 ‘Copyright Alternatives and Select Committee on Third-Party Use.’

3. LC의 著作權 등록 試圖와 그 波長

1986년의 NAC meeting의 주요 의제는, '데이터베이스의 소유권 문제'를 원만히 타결하기 위해서는 주요 도서관망들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절대적인 공헌을 해왔던 LC가 이 문제해결을 위한 前面에 나서야한다는데 있었다. 토의된 여러 안건들 중에 OCLC의 저작권 문제가 여전히 핵심을 형성하고 있었지만⁵⁾, 향후 '소유권' 논쟁의 새로운 불씨가 되었던 LC MARC database의 저작권 문제가 최초로 논의된 것도 이 NAC meeting에서였다. 이 meeting에서, LC를 대표하여 참석했던 H. Avram의 다음의 주장은 LC MARC database에 대한 저작권을 확보하려는 LC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several institutions in this country or abroad have made available for sale in a country other than the U. S. the LC MARC database, either in its entirety or subsets of it. Since the LC Cataloging Distribution Service (CDS) must earn half of its appropriated funding and in the interest of maintaining viable pricing structures for the community, it was necessary for LC to impose copyright for its records distributed internationally, i. e., only LC has the authority to distribute its database internationally. ...the concepts of 'public domain' and 'no copyright claim' do not exist outside of the U. S. Under certain special agreements made with national libraries of other countries, the LC databases may be distributed within the country of a national library" (Avram, 1986).

위 인용문을 통해 볼때, LC의 의도는 LC MARC database의 제작과 관련한

5) 이때 토의된 주요 안건들은, OCLC의 저작권 등록 문제를 포함하여, RLIN database에 포함되어 있던 the Eighteenth Century Short Title Catalog의 소유권자에대한 보상문제, LC에 의한 REMARK의 분배에 제한을 가하려는 the LC/Carroloton Press contract문제 등, 데이터베이스 혹은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 있는 서지레코드들의 소유권 문제가 핵심을 이루었다.

재정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있었고, 그 주요 대상은 해외의 이용자들인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LC가 의도하는 목적이 무엇이었든, 1986년의 NAC meeting에 참석하였던 대표자들의 반응은 매우 부정적이었다. LC의 직원들에 의해 LC MARC database를 저작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안서가 준비되어 있었지만, 참석자 중 그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 더이상 심도있는 논의를 바라지 않았다. 결국, 이 문제는 더 이상 거론되지 않은채 회의는 종결되었다. 그러다, LC MARC database를 저작권화하려는 LC의 의도가 표면으로 부각되면서 美國圖書館界가 다시 한번 '데이터베이스 소유권' 논쟁에 휩싸인 것은 1989년의 일이었다. 그해 7월, LC는 공식적인 선언을 통하여, LC의 MARC Distribution Service (MDS)에 가입한 모든 회원들은 LC와의 일종의 licensing agreement에 서명하여야함을 주장하였다. 이 licensing agreement의 준비를 총괄하고 있던 LC의 Avram은 가입자들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 LC가 MDS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그 서비스에 소요되는 경비의 충당이 필요하다는 다음과 같은 요지의 설명을 하고 있다:

"...while it is gratifying to note this growing use of our bibliographic data, it is now necessary to take appropriate steps to protect the economic viability of some of these programs and ensure the future of the MARC Distribution Service. ...those who do not redistribute records beyond their own institutions will not be required to pay any additional fees..." (LC's Letter to Subscribers, 1989).

Avram은 위의 공문을 통해, LC의 licensing agreement의 목적은 해외의 이용자 및 LC의 MARC 데이터를 적절히 재가공하여 해외에 판매하고 있는 미국의 vendor들에게 licensing fee를 부과하는 것을 통해, MDS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고자 하는데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LC가 준비한 'licensing agreement'의 제 IV/6 조항은, 그 licensing agreement의 대상이 단순히 해외의 이용자나 상업적 vendor들만이 아님을 암시하고 있었다. 즉, 그 조항은, 만약

MDS의 가입자들이 MDS records를 기계가독형의 형태로 상업적 vendor들에게 재분배할 경우, 상업적 vendor들의 지리적 위치에 관계없이, 재분배한 MDS의 가입자들은 추가비용을 지불해야함을 명시하고 있었다.

LC의 이와같은 결정에 대한 美圖書館界의 반발은 OCLC의 경우 만큼이나 거세게 나타났다. 특히, 각종 도서관망들의 경영층으로부터의 반발은 매우 거세었다. 흥미롭게도, 그러나, 한편으로는 당연히, LC의 결정에 대한 최초의 부정적 반응은 최대 규모의 도서관망을 형성하고 있던 OCLC로부터 나왔다. 당시, LC의 결정이 효력을 발휘할 경우, OCLC가 LC에 지불해야할 licensing fee는 어림잡아 6백만 불에 상당하는 것으로 OCLC의 경영층은 분석하고 있었다. (*Library Journal*, Nov. 1, 1989). 당시를 기준으로, OCLC database는 약 2천만 서지레코드를 포함하고 있었고, 이 중 약 3백만 서지레코드는 LC의 MDS를 통해 공급된 것이었다. 또한, 매주 약 4천 내지 6천개의 LC MARC records가 OCLC database에 추가되고 있었음을 고려한다면, OCLC 경영층이 추산한 금액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다.

OCLC 가입자협의회 (OCLC Users Council)는 즉각적으로 공개청문회의 개최를 요구하면서, LC가 저작권 시도를 포기할 것을 요구하였다. 美연구도서관협회 (ARL)를 비롯한 도서관 관련 단체들과 일부 지역도서관망들 또한 LC의 결정에 강한 반대를 표시하였다. 이때 美圖書館界의 衆論은,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의 圖書館界에 미칠 과급효과에 대한 세밀한 분석도 없이 단지 비용만회라는 측면에서 내려진 LC의 결정은 지나치게 성급하였다는 것으로 모아졌다. RLG (Research Libraries Group) 또한, LC가 美圖書館界의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licensing requirement'를 연기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와같은 도서관계의 강력한 반대에 봉착한 LC로서는, licensing requirement의 이행을 연기하는 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실행의 과급효과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및 평가가 이루어진 후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겠다는 LC의 공식적인 발표가 나왔고, 이로써, 이 문제는 외면적으로나마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LC의 공식적인 발표에

는 결코 licensing requirement를 포기하겠다는 문구는 들어있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LC의 의도는 '실행의 延期'에 있었고, 이후 美圖書館界에 대한 설득작업은 계속되고 있다. 이는, LC에 의해 다시 불붙은 '데이터베이스의 소유권 논쟁'은 수면 아래로 잠시 가라앉았을 뿐이지, 결코 종식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암시한다.

이 시점에서, '데이터베이스의 소유권'과 관련한 논쟁의 결과가 어떻게 종착될지 예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논쟁의 후면에는 미국사회만이 갖는 고유의 다양한 요인들, 특히,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특히, 도서관사상이라는 철학적 요인들이 잠재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논쟁이 미국 국내 뿐만아니라 국제사회에 있어서 문헌정보의 유통과 관련하여 미친/그리고 미치게 될 波長을 고려할 때, 이 논쟁의 결말이 가져다 주는 의미를 파악해 보는 작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데이터베이스의 소유권'을 둘러싼 논쟁은, 이제 더 이상 단순히 미국의 한 도서관망(OCLC)이 혹은 '국립'도서관(LC)이 재정회복을 위해 취한 경제적 조치와 그 조치가 美圖書館界를 논쟁속으로 몰아 넣었다는 기사거리로 그치지 않는다. LC의 MDS에 의존해 왔거나 혹은 OCLC database를 활용해 왔던 많은 국가들, 특히, 제3세계권 국가들의 도서관의 입장에서나 이 서지데이터베이스들을 활용하여 다양한 정보서비스사업을 전개해 왔던 다양한 국적의 서지정보서비스기관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논쟁의 결과가 가져다 줄 영향은 엄청난 것일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논문의 다음 장에서는 이와같은 서지데이터베이스의 저작권 논쟁을 유발시켰던 당시의 문화적, 경제적 그리고 철학적 要因들은 무엇이었는지를 분석해 보도록 한다.

Ⅲ. 서지데이터베이스의 著作權 論爭 : 文化的, 經濟的, 哲學的 要因

美圖書館界에서 일었던 서지데이터베이스의 저작권을 둘러싼 논쟁의 추이를 개괄적으로 분석해 보면, 이 논쟁은 관련 기관들의 재정적 안정을 추구하기 위한 방법이 '저작권 등록'이라는 다소 급진적인 형태를 띠고 나타난데 대해, 美圖書館界의 우러 (특히, 도서관계의 '전통적인 협조정신'에 대한 위협이라는 측면에서)가 감정적으로 격화된데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즉, '공공의 목적을 띠고 협조체제의 바탕하에 공공재의 형태로 개발된 정보'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관련기관의 재정적 이유를 내세워 제한하려는 '저작권 옹호자'들의 시도에 대해,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및 이용'이라는 문화적 전통에 젖어있던 미국사회에서, 특히, 정보전문인인 사서들의 입장에서, 반발하고 분개하였던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저작권 논쟁에 대한 관련 문헌들을 분석해 보면, OCLC나 LC에 의한 저작권 시도를 비난하는 저자들조차도 OCLC나 LC의 재정적 안정, 그들에 의한 서비스의 지속 및 확대, 궁극적으로 이 두 기관의 지속적인 발전이 문헌정보의 효율적인 유통을 위해 중요함을 곳곳에서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Bishop, 1985).

OCLC나 LC의 경영층의 입장에서, 저작권 등록은 곧, 그들의 주요 자산인 서지데이터베이스의 무분별한 사용을 억제하면서 궁극적으로 재정적 안정을 추구하기 위한 최상의 선택으로 고려되었음이 관련 문헌에 나타난다. 저작권 등록에 대한 OCLC의 입장을 변호했던 R. Brown은, 무분별하고 무제한적인 사용으로 인한 물리적 파괴나 혹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부터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할 (법적이라기 보다는 차라리) 도덕적 의무가 OCLC에게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OCLC에 가입하지 않은 도서관들 혹은 기관들에 의한 OCLC database의 사용이 증가일로에 있으며, 이로인해, OCLC database를 구축하는데 공헌하여온 OCLC 가입도서관들의 피해는 증가할 것임을 경고하였다. 그는 특히, 대다수의 비가입도서관들이나 기관들이 OCLC와 개별적인 법적 협약을 맺고 있지 않는 상태이므로, 이들에 의한 OCLC database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OCLC가 데이

타베이스에 대한 저작권을 등록하는 것이었음을 강조하였다(Brown, 1985). 한편, LC의 H. Avram 또한, LC가 '서지정보의 보급'이라는 (비공식적이기는 하지만 국립중앙도서관으로서의) 주어진 의무를 충실히 지속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안정이 필요하며, 그 재정적 안정은 LC MARC 분배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을 서비스 수혜자들로 부터 회수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 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선의 방책은 LC MARC database를 저작권화하는 것이라는 논지의 주장을 폈다 (LC Information Bulletin, 1990).

그러나, 저작권 등록에 반대하는 입장에 선 도서관 관련 人士들의 견해는 OCLC 나 LC의 경영층의 그것과는 사뭇 달랐다. 앞서 언급되었듯이, 반대파 또한 OCLC 나 LC의 재정적 안정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저작권 등록'이라는 방법에 대한 근본적인 거부감이 그들에게는 있었다. 관련 문헌을 분석해 보면, 반대파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여러 要因들이 등장하는데, 그 要因들 중 '저작권'이라는 용어 및 행위 자체에 대한 美圖書館界의 문화적 거부감이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Marshall이 정확하게 지적한 것 처럼, 美圖書館界에 종사하는 전문사서들에게 있어 '저작권'이라는 용어 자체에 대한 반감은 문화적으로 뿌리깊게 퍼져있었다 (Marshall, 1985). 미국의 전문사서들에게 있어서 著作權이라는 용어는, 개인이나 혹은 단체에게 그들의 지적 生産物에 대해 배타적인 법률적 통제권을 부여하는 수단을 의미했고, 이는 곧 美圖書館界에 있어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이라는 정신에 입각한 도서관사이의 전통적인 협조정신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OCLC가 저작권을 위한 등록을 시도했을 때 美圖書館界가 가장 우려하였던 것도, 저작권이 인정될 경우 도서관 사이의 협조체제의 산물인 OCLC database에 대해 OCLC가 일방적인 권한을 행사하게 됨으로써, 궁극적으로 전통적인 도서관 협조정신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반감과 두려움이 앞섰던 까닭이었다 (Grisham, 1985).

저작권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에 더하여, 저작권에 반대하는 美圖書館界

인사들이 우려하였던 바는 (특히, OCLC의 저작권 노력과 관련하여), OCLC가 이윤추구의 기업형태로 경영전략을 바뀌함에 따라 애초 OCLC의 성립에 기본이 되었던 도서관 사이의 '자원공유 (resource-sharing)'를 위한 협조정신이 퇴색해 간다는 데 있었다.

DeGennaro의 다음 코멘트는 당시 美圖書館界 사서들의 분위기를 적절히 대변해 준다 :

"... OCLC appears to be shedding the last vestiges of its cooperative origin as it evolves into a new kind of not-for-profit high tech information company based on the corporate model. Its management comes from the corporate world, speaks the languages of business and law, and measures success by the bottom line... It appears that OCLC's management believes that what is good for OCLC must be good for the library world..." (Degennaro, 1984).

서지데이터베이스의 저작권화에 대해 美圖書館界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 데에는, 문화적 요인이외에 경제적 요인 또한 심각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가령, 당시 지역별/종류별로 형성되어 있던 많은 수의 도서관협력조직들은 멤버들에게 분배하기 위한 COM 목록의 생산을 지역도서관망들이나 vendor들에게 의존하고 있었던 바, OCLC에 의한 저작권 등록이 인정된다는 것은, 지역 도서관들의 서지 정보요구에 대처하기 위해 OCLC database에 포함되어 있는 레코드들을 자유로이 이용해 왔던 도서관협력조직들의 권리가 제한당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사실상, 저작권이 OCLC에 속하는 것으로 판결이 날 경우, OCLC는 자신과 경쟁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도서관망들이나 상업적 vendor들이 OCLC database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혹은 사용료 지불요구를 합법적으로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하였으며, 이는 곧 최종이용자인 지역도서관들에 대한 경제적 압박으로 결과할 수 있었다. 역사가 입증하는 것처럼, 저작권 반대파들의 우려는 곧 현실이 되어 나타

났다. 저작권을 확보한 OCLC는 지역도서관망들 그리고 가입도서관들과의 협약갱신 과정에서 데이터베이스의 사용과 관련하여 보다 강화된 요구사항을 들고 나왔으며, OCLC와 도서관계의 관계는 급속도로 냉각되어 갔다.

이때, 협약갱신을 위해 OCLC의 경영층에 의해 준비된 文書⁶⁾의 내용을 분석해보면, 지역도서관망들이나 가입도서관들의 우려가 과장이 아니었음이 명백해진다. 그 文書에 의하면, 지역도서관들의 정보요구에 따라 특정 서지데이터베이스를 구축/유지/보급하는 '제3자'들이 OCLC database에 포함되어 있는 서지레코드들을 그들의 서지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위해 이용할 경우, '제3자'들은 OCLC에 의무적으로 그 서지데이터베이스의 복사본을 제출하고, 이 복사본의 제작에 관련된 비용은 전적으로 '제3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있었다(Transfer of OCLC-Derived..., 1985). 이처럼, 이 文書는 OCLC의 경영층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저작권을 활용하여, 경쟁자들의 도전을 뿌리치고, 나아가 경쟁자들의 비용으로 OCLC database의 내용을 강화하려 했던 예를 제공한다. 지역도서관망들의 경비증대는 곧 지역도서관들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남을 의미하였으니, OCLC의 저작권 확보노력에 대한 美圖書館계의 반대는 이처럼 경제적 측면에서도 당연한 것이었다.

서지데이터베이스 소유권 논쟁의 또 다른 요인은 도덕적이면서 윤리적인 혹은 다소 철학적인 측면과 관련되어진다. 주지하다시피, OCLC database를 구성하는 서지레코드들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소위 'public domain'에 속하는 서지레코드들로, LC나 美연방출판국 (Government Printing Office) 혹은 연방도서관들에 의해 주로 공공기금에 근거하여 생산되어진 것들이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이 서지레코드들을 제외한 나머지 레코드들도 대부분 OCLC의 가입도서관들의 작업결과로 생산되어진 것들이라는 점이었다. 이와같은 환경에서, OCLC의 가입여부를 막론하고 전체적인 도서관들의 입장에서 볼 때, OCLC database는

6) 이 文書의 정식 명칭은 "Transfer of OCLC-Derived Machine-Readable Records to Third Parties: Principles and Guidelines"으로 1985년에 제작 배포되었다.

분명히 'public domain'에 있었다. 따라서, OCLC가 OCLC database에 대한 저작권을 신청하였을 때조차도, OCLC 시스템을 사용하는 가입도서관들은, 그들이 생산해 낸 서지레코드들에 대한 소유권은 그들에게 있으며, 당연히, 그 서지레코드의 재사용에 관한 권한도 그들에게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Drew, 1985). 그러나, 앞서 언급되었듯이, 저작권사무소의 최종결정은 이들의 순진한 생각을 여지없이 흔들어 놓았다. 가입도서관들이 서지레코드들을 생산해낸 주체임은 분명하였으나, 그 서지레코드들은 더 이상 그들의 소유가 아니었다.

'Public Domain' 이론은 OCLC의 경우 보다는 LC에 의한 저작권 확보 노력과 관련하여 저작권 반대파들에게 더욱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 LC의 행위는 '공공재의 형태로 생산된 정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자유로이 접근되고 이용되어야 한다는 미국사회의 철학적 전통을 위배하는 것'이라는 비난이 美圖書館界로 부터 쏟아진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심지어 OCLC의 경영층조차도 LC의 행위를 비난하기 위한 명분으로 이 이론을 인용하였던 바, 가령, OCLC의 Smith 회장은 LC의 licensing requirement를 '美圖書館界가 퇴보를 향한 거대한 행보를 시작한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美연방정부의 공무원에 의해 생산된 LC MARC database의 사용에 비용을 지불하라는 행위는 미국의 건국정신에 근본적으로 위배되는 것이라는 주장을 서슴치 않았다. (*Library Journal*, September 15, 1989). 그러나, 그는 결국, OCLC database의 많은 부분이 LC에 의해 공급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OCLC database의 저작권 등록은 당연한 일이 될 수 있느냐는 同輩들의 반론에는 묵묵부답이었다.

이제까지 간략히 美圖書館界에 서지데이터베이스의 저작권과 관련한 논쟁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그 문화적, 경제적, 철학적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았다. 이 논쟁의 진행과정과 요인을 분석해 보면서 드는 하나의 의문은 OCLC나 LC에 의한 저작권 확보 노력이 이들 기관의 입장에는 개정적 안정을 확보하는 최선의 선택이었을지는 모르지만, 국가차원의 도서관협조체계의 성공작으로 평가되는

OCLC와 문헌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에 대한 기여를 최대의 임무로 표방하고 있는 공공기관인 LC가 취한 선택치고는 지나치게 성급한 것이 아니었는가 하는 점이다. 관련 학자들은 이들에 의한 저작권 확보시도가 美圖書館界의 협조전통에 부정적 영향은 끼친 것은 물론이고, UNESCO의 UNISIST계획아래 활발히 추진되고 있던 국제적 문헌정보유통사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기서, 이 논문의 다음장에서는 '서지데이터베이스의 저작권 논쟁'이 이 문헌정보의 유통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미치게 될지는 대해 관련 문헌을 토대로 분석해 본다.

IV. 서지데이터베이스의 著作權 문제가 문헌정보의 유통에 미치는 影響

1. 美國內의 문헌정보유통에 미치는 影響

OCLC와 LC가 다양한 문헌정보서비스를 통해 美圖書館界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서지데이터베이스를 저작권화하려는 시도는 이들 두 기관에 대한 美圖書館界의 신뢰도에 흠집을 남기었다. 1984년, OCLC의 事例를 지켜보던 DeGennaro는 美圖書館界의 대응추이를 다음과 같이 예견한 바 있다:

"...If OCLC charts a course which ignores the interest of libraries, librarians will cease to have a special interest in supporting it as one of their own and will deal with it any other vendor" (DeGennaro, 1984). DeGennaro의 경고는 옳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OCLC database의 저작권에 대한 논쟁은 끊임없이 지속되었고, 이로 인해 OCLC의 성장은 오히려 둔화되었을 뿐

만아니라 개정적 손실 또한 막대하였다. OCLC가 저작권등록時 내세웠던 대의명분의 핵심이 '재정적 안정의 추구'에 있었음을 고려할때, 저작권 논쟁에 휩싸임으로써 오히려 재정이 악화되고, 나아가 현장사서들의 마음에 적대감까지 심어 놓는 결과로 이어졌음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LC의 경우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 공공기관으로서 LC가 취했던 태도는, 그 저작권 시도라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이미 美圖書館界 현장사서들의 마음에 불신감을 심어주기에 충분하였다. 특히 모든 종류의 서지데이터를 자유로이 공유한다는 원칙 아래 LC를 중심으로한 진정한 의미의 전국적인 도서관망 구축을 염원하고 있던 현장사서들이 받은 충격은 실로 컸다. 최대의 문헌정보 생산자요 공급자로서 美圖書館界의 존경과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있던 'mother library'가, 그 세계의 전문가들의 신뢰를 잃고 또 하나의 '정보서비스업자'로 취급되고, 심지어, 도서관계의 전통적인 협조노력에서 제외된다면, 이는 곧 美圖書館界 전체의 비극을 의미했다. OCLC의 경우와는 달리 LC의 시도는 일단 불발로 끝났고, 따라서, 후속적인 논쟁은 일단 소강 상태에 있으므로, 실제로 LC와 美圖書館界가 받은 정신적/물질적 타격이 얼마나 심했었는지를 측정한다는 것은 시가상조인 감이 있다. 단, 이 논쟁이 1990년대초 진행 중이던 야심찬 'Linked System Project (LSP)'에 미쳤던 부정적 영향을 분석해 봄으로써, 美國内の 문헌정보유통에 대해 저작권 논쟁이 끼쳤던 부정적 영향을 분석해 봄으로써, 美國内の 문헌정보 유통에 대해 저작권 논쟁이 끼쳤던 영향에 대해 간접적으로나마 개관해 보도록 하자.

19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초에 이르기까지의 美圖書館界의 협력체제구축을 위한 노력의 白眉는 무엇보다도 LSP의 실행에 있었다. 미국의 4대 문헌정보유통기관들(LC, RLG/RLIN, WLN, 그리고 나중에 OCLC가 참가)이 중심이 되어 서로의 시스템들을 연결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적극적인 네트워크의 구축을 시도했듯이 LSP는, 그 초기에 서로 다른 통신협약(protocols)에 기초한 시스템들을 연결

하는데 따른 기술적인 문제가 걸림돌이 되어 잠시 주춤하기도 했지만, 참가한 전문 사서들은 거의 대부분 그 성공을 의심치 않고 있었다. 그러나, 자신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마친 OCLC가 합류하고, LC마저 자신의 MARC file에 대한 저작권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공개공유(Open Sharing)'의 원칙下에 문헌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목표로 한 이 계획은 근본적인 불협화음을 내재하고 있었다. 특히, OCLC의 경우, OCLC database에 대한 제3자의 무단 이용을 통제할 권한이 제한당하는 것을 감수해야할 처지에 있었기에 이 계획의 초기단계부터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이처럼, 데이터베이스의 소유권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결이 전제되지 않는 한, 이 LSP의 성공여부는 불투명하다. 문제의 핵심은, 한 참가 기관의 가입도서관들이 또 다른 기관에 의해 저작권이 등록된 서지레코드를 사용하고자 할 때, 이를 조정할 정책을 어떻게(어떠한 원칙하에) 마련하는가 하는데 있는데, 명백히, 서로의 이해가 앞서는 상황에서 이와같은 정책의 마련에는 여러 복잡한 문제가 내포되어 있었다. 이 문제의 복잡성은, LPS 이전에 美도서관자료협의회(Council on Library Resources)의 Bibliographic Services Development Program의 일환으로 OCLC와 RLG 사이에 체결되었던 서지레코드의 교환에 관한 협정이, 그 초기의 기대와는 달리 순탄치 못했던 경우에서 구체적인 예를 발견할 수 있다. 처음 이 협정에 의해, OCLC와 RLG는 각 시스템의 이용자에 의해서 생산되어진 목록을 마이크로필름 형태로 서로 교환하는데 동의하였고, 이는 곧 마이크로필름 형태의 목록에 포함된 서지레코드들의 이용에는 쌍방간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말자는 묵시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OCLC는 곧 태도를 바꾸었다. RLG와는 달리 OCLC는 완전한 세트의 형태로 마이크로필름 목록을 생산하여 이를 지역도서관들에게 제공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였고, 이는 OCLC의 재정 에 큰 도움을 주었다. 따라서, 앞서의 협정에도 불구하고, OCLC의 입장에서는

OCLC에 큰 도움을 주었다. 따라서, 앞서의 협정에도 불구하고, OCLC의 입장에서는 OCLC의 의해 생산된 마이크로필름의 완전한 세트룰 RLG에서 이용하고자할 때에는 그 비용을 청구할 의도를 갖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같은 환경에서, 데이터베이스의 소유권에 대한 논쟁이 LSP의 장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예견은 가능하다. LSP가 성공하려면,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각자의 이해를 뒤로 하고 '문헌정보유통의 활성화'라는 대명제下에 서로 협력해야 함을 전제로 하는데, 참가기관 각자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다면, 시작도 전에 그 성패는 결론이 나버린 것이나 다름 없다. OCLC가 그것의 서지레코드의 이용를 지속적으로 제한하고 또한 LC가 그것의 서지데이터베이스를 라인센스화하려는 노력을 계속한다하면, 극당적인 상황에서, 지역도서관에 종사하는 司書들 중에는 양 기관이 제시한 복잡한 정책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면서 단순히 지역도서관시스템에 활용할 목적으로 OCLC와 LC의 서지레코드를 암거래를 고의적으로 부추기는 일을 도모할지도 모른다. 이처럼, OCLC나 LC의 事例는, 서지데이터베이스의 소유권 문제와 이로인한 소모적인 논쟁이 미국의 다양한 도서관망의 지속적인 개발에, LSP의 성공적인 실행에, 궁극적으로는, 미국내의 문헌정보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유통에 영향을 주고 있고/줄 것이라는 판단을 가능해 한다.

2. 국제적인 문헌정보유통에 미치는 影響

미국에서 벌어진 서지데이터베이스의 소유권 논쟁은 국제정보정책의 분야, 특히, 국제적인 문헌정보의 유통과 관련하여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1980년대 동안, 미국의 전문사서들 사이에서 '정보의 본질'과 관련하여 일어난 커다란 인식변화중에 하나는, 경제적 자원으로의 정보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증대할 것이라는 사실과, 특히, 특정 형태의 정보를 처리, 저장, 보급하는 능력의 보유

여하에 따라 한 정보기관이 여타 정보기관들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기술적 통제권을 장악할 수도 있다는 자각이었다. 이 자각은 실질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저작권 논쟁'의 또 하나의 숨겨진 요인이었음이 관련문헌에 나타난다 (Carpenter, 1988). 위의 논리를 국제적인 정보유통에 적용할 때, 특정 형태의 정보를 처리, 저장, 보급할 수 있는 능력의 보유 여하에 따라, 한 국가가 여타 국가들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기술적 통제권을 장악할 수도 있다는 가설의 성립이 가능하다.

이 가설에 주목하여 국제적 문헌정보유통市場에 관심을 갖고 이 분야로의 진출을 최초로 시도한 기관은 OCLC였다. 문헌정보유통을 위한 네트워크로서의 가치가 미국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님을 자각한 OCLC는, 1980년초 부터 OCLC system을 전세계로 확장시키는 일에 착수하기 시작하였다. OCLC가 시스템 확장을 위한 첫 번째 대상으로 삼은 나라는, 지극히 당연히, 또하나의 영어권 국가 - 즉, 영국이었고, 그 결과는 1981년에 OCLC Europe이라는 자회사의 설립으로 나타났다. 이 시점부터, OCLC는 유럽대륙으로 그 서비스를 확장하였고, 이어 캐나다 그리고 일본에 이르기까지 전세계로 그 시장을 넓혀 왔다. 세계시장으로 진출하면서, OCLC의 경영층은 OCLC의 국제도서관界로의 진출은 OCLC와 해당국의 도서관들 그리고 학자들 모두에게 유익한 일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 근거로, OCLC는, OCLC database에 전세계의 다양한 장서들의 목록을 수록하는 것을 통하여 OCLC database 자체의 내용이 훨씬 다양해졌으며, 나아가, 미국뿐만아니라 전세계의 학자들에게 OCLC database의 풍부한 서지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제적인 학술진흥에도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Little, 1988).

긍정적 측면만을 강조할 때, OCLC 경영층의 주장은 설득력을 지닌다. OCLC가 서비스영역을 국제적으로 확장하면서, 실제로 미국의 圖書館界가 누리게 된 혜택은 많았다.

무엇보다도, 해외에서 외국어로 출판된 다양한 문헌들에 대한 서지정보가 속속 OCLC database에 첨가됨으로써, 미국의 현장사서들 특히, 목록작성을 담당하는 cataloger들의 작업은 훨씬 수월해졌으며, 미국 학자들에게도 전세계에서 출판되는 다양한 문헌에 대한 서지정보에 보다 폭 넓게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 혜택은 비단 미국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OCLC 서비스의 국제적인 확장은 OCLC 서비스가 이용가능한 국가들의 도서관들과 학자들에게도 많은 혜택을 주었다.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문헌정보원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들 국가의 도서관들의 수서 및 목록작성업무가 한층 수월해졌으며, 학자들 또한 보다 다양하고 광범위한 문헌정보에 대한 접근이라는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1984년에 OCLC에 의한 OCLC database의 저작권 등록은 앞서의 긍정적인 측면에의 의미를 희석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OCLC의 조치는, UNESCO를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던 '국가간의 자유로운 정보의 유통원칙 (the principle of free information flow)'에 입각한 산업선진국가들과 후진국가들 사이의 정보불균형 타개운동에 결정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대부분의 산업 후진국가들에게 있어 OCLC에 의한 저작권 등록은, OCLC 경영층이 주장하던 혜택이 일시에 사라짐을 의미했다. OCLC 시스템을 도입 운영하기에 그들의 국가재정은 넉넉한 편이 못되었던 것이다. 비영리를 목적으로 천명하였지만 하나의 기업의 형태를 띠고있던 OCLC로서는 국제도서관계의 윤리적 규정인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원칙'을 준수할 의무는 없었다. 따라서,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OCLC의 행위를 비난할 근거를 찾기는 힘들른지 모른다. 그러나, 저작권 등록을 통해 OCLC가 국제도서관계에서 받은 비난은 전세계적인 문헌정보 네트워크로서의 OCLC의 위상정립에 결코 이롭지만은 않을 것이다. '공동개발과 상호이익을 위한 파트너'로서의 이미지 보다는 '또 하나의 거대한 상업적 vendor'로서의 이미지를 OCLC는 이미 국제도서관계의 사서들에게 심어주었기 때문이다. -

OCLC에게는 ‘국가간의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원칙’을 준수할 의무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LC의 경우는 달랐다. 국제도서관계에서 미국의 도서관을 대표하는 LC는 이 원칙을 준수할 단순한 의무를 넘어, 국제정보사회 (global information society)의 건설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선도할 의무를 지니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사실상, 국제도서관계의 다양한 협력사업들, 특히, UNESCO, IFLA, FID 같은 도서관관련 국제조직들의 활동에, LC는 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LC MARC database를 저작권화하려는 LC의 시도는, 특히, 그 주 대상물 해외의 이용자도 삼고 있었다는 사실은, 국제적인 문헌정보유통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던 LC의 과거 업적들을 희석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비록, 1980년대를 통해 LC의 재정상태가 극도로 악화되고 있었고, 여타 주요 산업국가들의 국립도서관들이 앞다투어 그들의 서지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저작권 주장을 펴고 있던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국제도서관계의 리더로서 LC의 시도는 부적합하고 성급한 것이었다는 것이 국제도서관계의 중론이었다.

그렇다면, 이와같은 국제적인 비난을 무릅쓰고 LC는 왜 LC MARC database에 대한 저작권확보에 그토록 집착할 수 밖에 없었는가? 비용회수 (cost-recovery)라는 명분 이외에 또 다른 요인은 없었는지? LC의 저작권 시도를 전후해서 1980년대의 국제적 문헌정보유통 환경을 분석해 보면, 이에 대한 의문이 다소나마 풀린다. 1980년대 중반 이전까지는, 국립중앙도서관장협회 (the Conference of Directors of National Libraries)의 후원하에, the International MARC Network Committee (IMNC)가 ‘국제사회에서의 정보자원 공유’라는 전통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간의 합의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었다. 국립도서관들 사이의 합의에는, 한 국가에 의해서 생산된 서지데이터가 다른 국가에 의해 수입될 때 그 수입국가내에서의 서지데이터의 분배를 자유롭게 허용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1985년 이후, 주요 참가국의 대표들은 그들

국가에 의해 생산된 서지데이터가 수입국의 국립중앙도서관을 제외한 다른 정보관련기관들(특히 그들의 서지데이터를 활용하여 여타 기관들에게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서비스기관들)에게 분배되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갖기 시작했다(Avram, 1884 & 1986). 이 불만의 근본 이유는 1980년대 들어 대부분의 산업선진국가들이 겪고 있었던 경기침체와 깊은 연관을 가진다. 경기침체로 인해 정부예산이 삭감되고, 이에 따라 공공부문에 대한 정부투자는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이는 공공기관에 의한 정보생산능력의 감소로 이어졌던 바, 이 영향을 가장 민감하게 받았던 정부기관들 중의 하나가 국립중앙도서관들이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긴축재정을 강요받던 국립중앙도서관들에게 정보의 생산에 관련된 비용을 자체적으로 회수하라는 정부의 압력은, '비용회수(cost-recovery)의 원칙'에 입각한 새로운 경영전략의 선택을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었다. 이와같은 상황下에서, 대부분의 산업선진국들의 국립중앙도서관들은, 서지데이터의 폭넓은 보급이라는 중앙도서관으로서의 기본 의무와 서지데이터 판매를 위한 비즈니스 전략의 수립이라는 '서로 대립되는 목표'사이에서 새로운 생존전략의 수립을 강요받던 시기였다.

자본주의 사회의 특성上, 공공기관에 의한 정보생산능력의 감소는 공공재의 형태로 생산되던 정보를 처음부터 그룹재나 개인재의 형태로 생산하게끔 하는 경향을 부추긴다. 이와같은 경향은 생산분야에서 뿐만아니라 유통분야에 이르기까지 민간기업의 침투를 촉진시키는 바, 서지데이터의 생산과 유통분야도 예외는 아니었다. 서지데이터의 생산과 유통분야에 민간기업의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국가단위의 문헌정보망 혹은 문헌정보서비스센터를 독립적으로 설치 운영하던 산업선진국의 국립도서관들은⁷⁾ 非정부 부문에 대한 서지데이터의 보급업무에서 손을 떼든지 아니면 그들의 경영전략을 비즈니스화하든지 하는 선택을 강요받고 있었다. 특히, 서지데

7) 대표적인 예로서는 the British Library the National Library of Australia 등이 있다.

이타의 유통분야에 대한 민간기업의 진출이 급증하면서 서지데이터의 수입국가內的 민간기업들에 의한 서지레코드의 재사용문제는 국립도서관들에게 있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었다. 이처럼, 수입국가내에서 정보유통업체들에 의해 자신들의 서지레코드가 재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국립도서관들의 대책은 보다 강력한 형태를 띠고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로 등장한 것이 그들의 서지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저작권을 확보하려는 경향이었다.

LC의 저작권 확보 노력 또한 이와같은 국제적 추세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여타 산업선진국가의 국립중앙도서관들의 경우와는 달리, 국립중앙도서관들 사이의 협력체제에 있어 실질적 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던 LC의 경우, LC MARC Records의 저작권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는 그 서지레코드들의 재사용 문제와 맞물리면서 곧 국제도서관계를 논쟁속으로 몰아 넣었다. 여타 국립도서관들의 저작권 확보 추이와 관련하여 LC의 시도 또한 논리적 타당성을 지니고 있었으나, 많은 국립중앙도서관들의 대표자들, 특히, 산업후진국 대표자들의 반발은 드세었다. 이들은 국제도서관계에서의 LC의 영향력을 강조하면서, LC의 시도가 국제문헌정보의 유통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심각함을 주장하였다. 이때, LC의 시도에 대해 산업후진국 대표자들에게 비난의 근거를 제공하였던 것은, 1974년 IFLA의 UBC Program을 통해 미국의 도서관학자 Dorothy Anderson이 제기하여 국제적인 '문헌정보의 자유로운 유통' 운동의 철학적 기반이 되었던 'Universal Bibliographic Control' 정신이었다.

당시, Anderson은, UBC program의 목적은 전세계 모든 국가에서 생산되는 출판물에 대한 기본적인 서지데이터를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있는 양식에 의거) 전세계에 즉각적으로 유통시킴으로서 전세계인의 문헌정보욕구를 충족시키게 있다고 설명하면서, 그와같은 목적의 달성을 위해 각국의 국립중앙도서관들이 UBC system의 구성원이 되어 그들 국가에서 생산되는 출판물에 대한 서지레코드를 국

제적으로 유통시키는데 중심역할을 수행해야함을 강조한 바 있었다 (Anderson, 1974). 이후, UBC program의 원칙에 입각하여, 각국의 국립중앙도서관들은 자국에서 생산되는 출판물에 대한 서지레코드들을 국제 목록법칙에 적합한 형태로 제작하여 이를 국내외에 보급/유통시키는 책무를 이행하여 왔다. 이 UBC program은 많은 국가들에게 혜택을 주었다. 국가단위의 서지레코드의 자유로운 교환을 통해 국제적인 문헌정보에 대해 폭넓고 자유로운 접근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국가간의 문헌정보의 유통을 촉진하는데 공헌한 바는 매우 컸다. 특히, 독립적인 문헌정보데이터베이스를 생산/유지하기에는 정보하부구조가 극히 열악한 상태에 있었던 많은 산업후진국가들의 입장에서, 이 UBC program은 정보의 지역적 불균형을 극복하는 수단 중의 하나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앞서도 언급되었듯이, 문제의 핵심은 이 UBC program의 핵심 주체는 미국이었고, LC가 생산/보급하는 LC MARC database는 그 중심에 있었다는데 있었다. R&D 분야의 발전을 위해 UBC program을 통한 외국의 문헌정보에 (특히, LC MARC database)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해 왔던 많은 산업후진국들의 입장에서, LC의 저작권 확보 시도는 UBC program下에 누리던 혜택이 가까운 장래에 사라짐을 의미했고, 궁극적으로, 국제적인 문헌정보의 유통에 있어 지역적 불균형에 기초한 종속관계가 심화됨을 의미했다. 이처럼, LC의 저작권 확보를 위한 시도는, 그에 앞선 OCLC의 저작권 확보와 함께, 국제적인 문헌정보의 유통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고/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의 현장사서들이 오랜 기간 동안 그토록 지원해 왔던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 운동은 OCLC와 LC의 저작권 확보 (혹은 시도)라는 악재를 만나 침몰위기를 맞고 있으며, 산업후진국가들이 토착적인 문헌정보시스템을 구축/발전시키는 것을 돕는 것을 통하여 산업선진국들과 후진국들 사이의 정보격차를 줄이려던 UBC program의 정신에도 결정적인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V. 결론 및 제언

미국의 도서관계에 있어서나 국제도서관계에 있어서나, '서지데이터베이스의 소유권 논쟁'은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 정신을 흐리게 한 악재였다. 이 논쟁은, 미국 내적으로는 야심찬 Linked Systems Project의 이행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도서관계의 현장사서들이 전통적으로 유지해 오던 협조정신에 지울 수 없는 상흔을 남겼다. 이 논쟁은 또한, '국가간의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통해 정보부국과 빈국 사이의 정보격차를 줄여보려는 국제적인 협조노력에도 찬 물을 끼얹는 결과를 낳았다. 특히, 국제적인 관점에서, '정보처리를 위한 공장'을 소유한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 사이에 정보를 매체로 한 종속관계의 성립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구체적인 實例를 제시하였다.

최근, 정보의 처리, 관리 및 유통을 위한 정보기술의 급격한 발달은, 비록 정보의 생산자라 할지라도 자신이 생산해 낸 정보에 대해서 조차 절대적인 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을 점차 어렵게 만들고 있다. 문헌정보의 분야도 예외는 아니어서, 문헌정보의 축적용기가 전래의 인쇄물의 형태에서 기계가독형 화일 (즉, 데이터베이스)의 형태로 급격히 변화해 가면서, 생산자와 이용자간에 쌍방 협약체결과 같은 전래의 방식으로는 제3자에 의한 사용을 전적으로 통제하기가 이미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정보유통을 위한 통신기술의 발달로 전세계에 구축되어 있는 기계가독형 화일들의 많은 수가, 협약의 유무에 상관없이 전세계의 이용자들에 의해 '자유로운 접근'이 허용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정보의 생산자의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 '저작권 등록'이라는 법적 통제력의 확보일런지도 모른다.

이미, GATT체제를 지나 WTO체제가 출범한 작금의 현실속에서, 자국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정책의 수립은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다. 문헌정보의 분야에서도, 많은 산업선진국들의 국립중앙도서관들이 그들이 생산해 내는 서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국제적인 저작권을 이미 확보하고 있거나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상황에서, 유독 미국에서 서지데이터베이스의 소유권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게 달아 올랐고, 그로인해 결국 LC MARC file의 저작권화 시도가 유보되고 있다는 사실은, 문헌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통해 연구개발 분야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노력중인 제3세계권의 정보 정책 관련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OCLC와 LC의 事例는, 이제 본격적인 도서관자동화시대에 접어들어 다양한 서지데이터베이스들을 구축 중에 있고, 궁극적으로는 이 서지데이터베이스들을 서로 연결시켜 명실상부한 국가문헌정보망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한국도서관계에도,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 1980년대 부터 시작하여 1990년대로 접어들면서 확산되기 시작한 한국도서관계의 자동화 노력은, 이제 독자적으로 개발/구축된 다양한 시스템들이 하나 둘씩 이용자 앞에 선을 보이기 시작 하면서, 점차 통합적인 국가문헌정보망을 구축하는 것과 관련하여 여러 문제점을 던져주고 있다. 서로 다른 시스템들을 연결하는데 따르는 기술적인 문제가 그 핵심에 있으며, 더불어, 통합된 시스템을 구성할 독립적으로 개발된 서지데이터베이스들의 관리 및 이용 문제가 또 하나의 논의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본 논문의 주제와 관련하여, 서로 다른 주제들에 의해 개발된 자동화시스템들을 통합체계 속에 운영하고자 할 때 생기게 될지도 모르는 법적 문제, 특히, 서지데이터베이스의 이용과 관련한 소유권 문제는 한국도서관계에서 시급한 논의를 요하는 문제로 보인다.

국가문헌정보망을 설립하려는 기본 목적은, 한정된 국가의 예산하에서 정보자료를 여러 도서관들이 공유함으로써 이용자들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자료를 공급하는 국가단 위의 장서개발적인 측면과 정보자료에 대한 목록작성을 공동으로 하여 사서들의 노력 중복을 방지함으로써 이 여력을 이용자에게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전환토록 하자는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개발적 측면에 두어진다. 간략히,

‘정보자료의 공유’와 ‘목록의 공동작성’을 통해 문헌정보의 유통을 효율적이게 하자는데 문헌정보망 구축의 근본 취지가 있다. 網의 형성은 이처럼 ‘협력’을 그 근본 철학으로 한다. 따라서, 개별 도서관들의 자동화시스템의 개발이 국가의 장기적인 계획과 지원下에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협력’을 위한 망의 구축이 보다 수월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전체적인 윤곽만 국가에서 제시하고 단위 시스템의 개발은 개별 기관에 의해 독립적으로 이루어는 경우이나, 혹은 국가의 개입없이 개별 기관들에 의한 독립적인 시스템의 개발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협력’을 위한 망의 구축은 선결해야 할 많은 과제를 지닌다. 후자의 경우, 개별 기관의 목소리는 커지기 마련이고, 개별적으로 구축된 서지데이터베이스의 통제와 관련한 ‘소유권’ 논쟁은 언젠가 불거져 나오기 마련이다. 특히, 여러 개별 도서관들이 협조체제를 이루어 공용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게 되고, 이와같은 데이터베이스들이 서로 연계되어 국가단위의 ‘통합적인 망’을 형성하게 될 때, 소유권을 둘러싼 문제는 더욱 미묘하게 된다.

우리는 위의 예들 중, 어느 경우에 속하는가? 우리의 도서관자동화는 어느 유형을 따라 어느 단계에 와 있으며, 궁극적으로 전국의 도서관을 하나로 묶는 ‘網’을 형성하게 될 때 겪게 될지도 모르는 難題는 무엇일까? 시스템들이 개발되었던 문화와 사회구조는 한국과 다르지만, OCLC와 LC의 事例는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도서관계의 관련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글을 마치면서, 현재 개발중인 개별 시스템들을 통합하여 국가단위의 명실상부한 문헌정보망을 구축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 우리 한국도서관계가 직면하게 될지도 모르는 (서지데이터베이스의 소유권 문제를 포함한) 관리 및 기술적 문제들에 대해, 도서관계 학자들 뿐만아니라 현장사서들에 의한 진솔한 논의를 기대해 본다.

參 考 文 獻

- 1)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Task Force on Bibliographic Databases. *Report of the ALA Task Force on Bibliographic Databases*. Chicago, IL : ALA, 1985.
- 2) Anderson, D. *Universal Bibliographic Control : A Long Term Policy, A Plan for Action*. Munchen : Verlag, 1974.
- 3) Avram, H.D. "Barriers : Facing the Problem."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10 (Feb. 1984). pp. 64~68.
- 4) _____. "Current Issues in Library Networking."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12 (Sep. 1986). pp. 205-209.
- 5) Bishop, D.F. "OCLC Copyright : A Threat to Sharing."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11 (Sep. 1985). pp. 202-203.
- 6) Brown, R. *OCLC : Present Issues, Future Directions : A Report to the Membership*. Dublin, OH : OCLC, 1985.
- 7) _____. "OCLC, Copyright, and Access to Information : Some Thoughts."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11 (Sep. 1985). pp. 197-198.
- 8) Carpenter, M., ed. *National and International Bibliographic Databases : Trends and Prospects*. New York : Haworth Press, 1988.
- 9) Cathro, W. "The Role of National Libraries in the Distribution of Bibliographic Records." *A Paper presented at Seminar of Bibliographic Records. Stockholm (15-16 August, 1990.)*

- 10) DeGennaro, R. "Will Success Spoil OCLC?" *Library Journal* 109 (April 1984). pp. 625-628.
- 11) Drew, S. "Online Databases : Some Questions of Ownership." *Wilson Library Bulletin* (June 1985). pp. 661-663.
- 12) "Fiat or Trial Balloon?" *Library Journal* 114 (Sep. 15, 1989). pp. 4.
- 13) Grisham, F. "Copyright is Wrong."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11 (Sep. 1985). pp. 199-200.
- 14) "Library of Congress' Licensing Threatens Access." *Library Journal* 114 (Nov. 15, 1989). pp. 6-8.
- 15) Lighthill, D.P. "Why OCLC is Implementing a Copyright Protection Program for the Databases." *OCLC Newsletter* 144 (Dec. 1982). pp. 3-4.
- 16) Little, T.M. "OCLC's International Initiatives and the Online Union Catalog." In: M. Carpenter, ed., *National and International Bibliographic Databases: Trends and Prospects*. New York: Haworth Press. pp. 67-78.
- 17) Maruyama, L.S. *The Library of Congress Network Advisory Committee: Its First Decade*. Washington, DC: LC, 1985.
- 18) Marshall, N.H. "A Board Member's View."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11 (Sep. 1985). pp. 200-202.
- 19) Martin, S.K. *Library Networks, 1986-87: Libraries in Partnership*. White Plains, NY: Knowledge Industry Publications. Ch. 10: Contracts and Database Ownership. pp. 139-152.
- 20) OCLC. *Transfer of OCLC-derived Machine-Readable Records to Third Parties:*

Principles and Guidelines. Dublin, OH : OCLC, 1985.

- 21) Schmidt, C.J. "Copyright : More and Less Than They Have Ever Wanted."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11 (Sep. 1985). pp.204-205.
- 22) Surprenent, T. "Problems and Trends in International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Policies." *Information Processing and Management* 23(1). pp. 47-64.
- 23) "The Care and Feeding of Bibliographic Data." *Bulletin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7(6) (August 1981). pp.24-27.
- 24) Webster D.W. and Maruyama, L.S. *Ownership and Distribution of Bibliographic Data : Highlights of a Meeting Held by the Library of Congress Network Advisory Committee, March 4-5, 1980*. Washington, DC : LC, 1981.

Copyright of Bibliographic Databases
and Its Impacts on Information Flows :
the Cases of OCLC and LC

Jae-Whoan Lee*

The Library of Congress' proposal to license LC MARC database and the following debate over the proposal shows that the issue on ownership of bibliographic databases, which surfaced as a topic of concern in the international library community with the OCLC's application for copyright of its databases in 1982, is not fading or dead into the 1990s. In particular, the way that technological developments are outpacing the ability of the relevant organizations and legal systems to make necessary adjustments is giving the library profession a warning that cooperative efforts for further development of the international library systems, such as the UBC program, might be seriously impeded without a swift and amicable agreement on the controversial 'database ownership' issue. Here, the purpose of this paper lies in discussing the 'database ownership' issue from a macro and long-term perspective, with emphasis on

*Full-time lecturer, Department of Library, Archives, and Information Studies, Pusan National University

its potential impacts on, and implications for, international information flows. To the end, the specific questions covered in this paper include: 1) what are the major causes of the database ownership controversy? 2) what are the potential impacts of the database ownership issue on the library profession's cooperative efforts toward free bibliographic information flows at the international level? And finally, 3) what are the implications of the database ownership issue for the Korean Library Community, which is making efforts toward the establishment of a national library network in near future through linking various library automation systems.